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은 장애인주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아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오늘 찬양예배시 사랑부와 에바다부의 특별순서

4월 21일은 전국 교회가 '장애인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다. '장애인주일'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반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특별 취급당해 온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서로 교류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바르게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자 1989년 범교단적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다음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정하고 지키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장애인주일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인주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00~400만의 장애인이 있는데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 산업재해, 공해, 성인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볼 때에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가족)이 전체 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것이다. 장애인 중 취학연령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중 75%가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기교육을 받는 장애유아는 1~2%정도다. 또한 재활의료기관(200여개)이나 복지시설(이용시설 10여개, 수용시설 120여개)도 크게 부족하며, 주민들의 잘못된 장애인관과 편의시설로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정부

의 장애인 복지 예산도 미비하여 이러한 장애인 복지 실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오래 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현장애아동조기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해 오다가 이를 충현복지관으로 바꾸면서 전문 장애인을 돕는 기관으로 발전시켰다. 충현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아동들과 자폐아동들, 성인정신지체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복지관내에는 장애아의 교육을 위한 장애아동조기교실과 직업훈련실을 두고 있어 작업 재할 훈련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학교 에바다부, 정신지체장애아를 위한 교회학교 사랑부를 두어 소정의 교회학교 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매주일 3부예배를 비롯한 각종 집회에도 모든 순서와 내용을 수화통역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로 나선 많은 교사들이 교통수단, 식사 협력, 교육 보조를 하고 있다. 장애인

한 명당 한 명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으며, 비록 육신의 장애로 어려운 것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건강

한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고개를 숙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떠들썩한 행사 위주로 장애인의 날만 기념하고 있는 오늘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장애인주일'이 제정된 의미를 잘 살피고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늘지고 연약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함께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한편 우리교회에서는 지난 금요일(19일) 저녁에 에바다부의 수화찬양제가 있었고,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사랑부와 에바다부의 특별순서가 있다.

김창인 목사, 당회장으로 노회가 허락

지난 4월 16일 남서울중앙교회에서 회집된 제49회 동서울노회(노회장 피종진 목사)에서는 동서울노회 산하의 강남시찰회(시찰장 노태진 목사)에서

청원한 '김창인 목사 충현교회 당회장 배정 청원'의 건에 대해서 후임 당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김창인 목사를 본교회 당회장으로 허락하였다.

소석장학회 법인 인가를 위한
후원회원 모집

우리교회 장학사업의 근간이 되어온 소석장학회(회장 김창인 목사)의 재단법인 인가를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연락처: 비서실 ☎ 562-7808).

베드로연합회 기도모임

베드로연합회(연합회장 김철환 집사)는 오는 26일(금) 금요일집회 후 10시 30분부터 선교관 102호에서 기도모임을 갖는다. 1부 예배(인도 장경철 목사, 권도

위원회 지도), 2부 기도회로 진행되는 이날 기도모임에 베드로전도회 각 지회의 임원들이 참석하게 된다.

전도위원회
특수 전도별 교역자 임명

당회는 전도위원회(위원장 장은원 장로) 산하의 각종 특수 전도부의 중요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담당 지도교역자를 임명했다.

- 군 - 현상면 목사
- 산업인 - 정광옥 목사
- 교 정 - 윤삼중 목사
- 경 팔 - 김희수 목사
- 학 원 - 아종매 목사
- 의 료 - 박정환 목사



주부 교양 강좌

전도위원회에서 그동안 기도회 준비해 오던 주부 교양강좌가 지난 4월 16일(목) 여전도회 회원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시작되었다. 이날 여전도회원들의 초청을 받고 충현복지관 지하 1층 안내실을 가득 메운 믿지 않는 가족, 전지들은 여전도회원들과 함께 특강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기독교문화와 복음을 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주부 교양 강좌는 4월 25일, 5월 2일, 7일,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주부들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 가족간의 문제를 다룬 주제로 진행된다.

주부 교양 강좌

4월 25일(목) 오전 10시, 충현복지관 지하 1층에서

'영양과 건강' 이 양 자 박사(연세대 교수)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 (4월 2일)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

(출 17:1-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함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

지난 고난주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열어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부흥집회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오신 감사 목사님의 자기 체험과 간증이 담긴 메시지는 온 교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우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어 <주간 중헌>에서는 부흥사경회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풀어 전하기로 하였다. 연재 순서는 부흥사경회 일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 (편집자)

오늘 아침의 말씀을 신약성경에 바울 사도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한 성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한 번 더 같이 받아서 합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아침에는 다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음료수란 헬라어 성경을 따라 직역하면 ‘성령의 음료수’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생수로, 물로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읽는다면 ‘다 같은 성령의 음료수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라 다니는 반석에서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가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중에 제일 중요한 요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용서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확신을 얻는다면 다른 것은 부러울 게 없지요. 둘째로 우리의 기도와 제물은 성령입니다. 성령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칭의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성취된 것으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받은 날, 어느 시간인 줄은 모르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성령 충만을 받아 가지고는 늘 충만한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충만, 충만

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지중해의 해안 쪽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면 보름만에 들어 갈 수가 있는 길이예요. 가다가 야자수 나무나 오아시스 같은데 이르러 물도 마시고 목도 축이고 잠도 좀 주무시면 서 보름만에 너럭히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어찌 하여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고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4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려서, 그 고난과 역경과 수난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낮추시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물을 먹이시는 사람이 먹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한 번 받아합시다. “사람이 먹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 없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복받으면 은혜를 변하여 색욕을 삼습니다. 유다서 4절의 말씀같이 죄 지어요. 은혜받아 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쓰고 뜻있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죄를 짓다가 망한다 이겁니다. “말씀을 주시려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



김덕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연재 순서

- 첫째날 (4월 1일)
 - 저녁 집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13:36-14:6)
- 둘째날 (4월 2일)
 -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출 17:1-7)
 - 낮 공부 은혜와 은사(고전 12:4-11)
 - 저녁 집회 다윗의 신앙간증(시 23:1-6)
- 셋째날 (4월 3일)
 - 새벽기도회 구름가동 불가동(출 13:20-22)
 -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창 28:10-22)
 - 저녁 집회 정조를 구하라(사 7:10-17)
- 넷째날 (4월 4일)
 - 새벽기도회 믿음과 생활(약 5:13-20)
 - 낮 공부 축복과 복(창 48:1-7)
 - 저녁 집회 말씀의 하늘의 세 가지 음성(계 17:15-18:5)
- 다섯째날 (4월 5일)
 - 새벽기도회 내 사랑아(마 6:4-9)

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받아 하세요. “하나님의 보배”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믿으세요. 보배답게 사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보배로 삼고 또 하나님의 보배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삼고, 제사장 나라만 삼는 것이 아니고 선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를 불러서 이 집니다.

육신이 잘 살려고, 속된 말로 ‘주방종교’ 즉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가고, 사고, 파는 것, 그것만 잘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주방종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되어 거룩한 일 하기 위해서, 천국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 거기에는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먹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제가 얘기를 하나 합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새벽기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재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기도가 다 끝나고 뒤통을 데려 봤이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서 가져오고 뒤통을 드셔서 맞기도 많이 맞았습다. 새벽기도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어려서 그랬지요. 제가 한번은 어머니께 야단맞는 것도 싫고 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머니보다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좋은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성경을 100독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100독을 하라고 하니 까 기절 초종할 정도로 놀라가지고 “아이고 성경은 이상한 글이던데. 두세 장 읽으면 그저 잠이 와가지고 벌써 끝

나라로 가는데 100독을 해요?” “신·구약 그리 못 읽겠거든 신약이라도 100독을 해라. 그러면 어머니보다도 더 잘 믿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그저 들고 다니며 100독을 하려고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100독을 넘겨 이제는 그 이상 봤겠지요. 그래서 어머니보다 잘 믿는다고 보기도 어쨌건 새벽 기도 문제가 해결이 났고, 어머니께 안맞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집 아이들이 넷인데 전부 다 성경을 수십 번씩 읽었습니다. “성경 읽으라” 해서 안 읽으면 패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배워서, “성경을 일년에 1독씩 읽으라. 어떤 일이 있어도 1독씩 읽으라”, 그렇게 성경을 읽히니까 그 결과 공부를 잘합니다. 학교에 가면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IQ가 개뿔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 확실한 것은 집중력이 생기고, 머리가 좋아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세워서 제사장 국가 삼으시려고 제일 먼저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보배,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 당신의 선민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받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고 되는 것입니까? “말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례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겨야 돼요. “여호와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주야로 말씀을 즐기고 묵상하므로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하므로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오른 수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경험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첫 세련이 뭘까 하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막에 나오면 물이 있습니까? 오아시스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오아시스를 못 만나면 읽는 책을 통해서 보면 낙타의 동맥을 끊어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아내면 자기 동맥 끊어 가지고 피 마시다 사막에서 죽는 그런 일이 수다 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뭍 주세요, 뭍 주세요” 했습니다. 모세가 어디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앞드러더라” 앞드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1일) 새벽기도회 ●

려서 뭘 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늘 었려서 “아버지여, 물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 물이 없어서 다 죽으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렘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왜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모세 밑에 장로가 몇 명이나 하면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오라” 요한 칼빈 선생은 말씀하기를 교회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장로에게 달렸습니다. 그분의 주석이 그대로 말해요. 교회가 잘되느냐, 교회가 못되느냐, 교회의 부흥은 장로들에게 달려 있다. 장로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로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고 장로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얻어야 그 교회가 불과 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장로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장로를 데리고 호렘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하나 가리켜 주시면서 “반석을 쳐라! 두 번도 치지 말고 한 번만 쳐라.” 이랬어요. 참 하나님도 회한하신 어른이지. 물을 이런 식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반석을 한 번만 탁! 치는 순간에 반석이 터져서 녹수 같은 생수가 나와 가지고 장로님들 70명이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우양들이 마시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생수의 역사가 선민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넉넉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얻게 하시고 영력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에 가는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천국에 데려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들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믿습니까? 이 성령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이 이 교회에 출렁출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를 얻는 비결, 다른 말로 고치면 성령받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반석을 쳐라! 이것입니다. 반석을 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것인데 죄를 지으면 영력이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모래 사막 같이 됩니다. 기도의 영력이 없습니다. 찬송의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야 되는 데 능력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배려받는 것이예요. 영력이 사라진 목사는 목회를 못해요. 또 성도들도 이 신령한 은혜의 생수가 떨어지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냐 못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죄를 짓고 신앙생활이 바로 한다면 차라리 메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단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반석같이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될 수 없습니다. 영력이 떠난 목회, 성령이 떠난 신앙생활은 전될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금식으로 밤을 새워 가면서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는 방법 중에 가장 귀중한 방법은 반석을 치는 것인데, 첫째는 ‘굳어진 심령을 쳐라’는 것입니

다.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자가 누구의 마음에 거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에 거하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 이여”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석을 쳐라, 자기 심령을 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길고 물둥이를 이고 가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 십니다. “물 한 그릇 주세요.”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 14). 성령을 말하는 것입 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 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전에 말씀도 했지만 제 일 중요한 것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들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믿습니까? 이 성령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이 이 교회에 출렁출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강과 샘물과는 차이가 있지요. 강이라는 것은 충만이지요. 충만, 충만,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충만받기 전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한 것이 아니라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물 길으러 오지 않게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남편 없다는 말이 옳습니다. 과거에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초면의 유대 남자가 과거의 비밀을 반석을 치듯이, 방망이로 치듯이 백일하에 노출을 시킬 때에 이 여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상심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신령한 생수가 강같이 그 심령에 흘러 들어갈 때에 물둥이를 배려하고 “동네 사람들아, 나의 과거를 말하는 사람을 보라. 동네 사람들아 나의 과거를 말하는 사람을 보라.”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 성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들어가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는 축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충령교회에 한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속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까지도 깨 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심령의 반석을 깨 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강같이 흘러내리리니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동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동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이 첫 은혜의 경험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충만히 받는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오

일 금식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아들보고 “내 간다. 내 가고 나면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시더니 기도하시고 나서는 그만 그대로 가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생각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은혜를 받는 일에는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반석을 치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잃었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단 한번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지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넉넉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크게 두 번 경험해야 됩니다. 처음 은혜받을 때는 반석을 쳐야 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리니” 우리 심령을 쳐라,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생활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 어떤 성도는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영력 있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성령 충만받는 그 일에는 반석을 가리켜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만세 반석 되시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 회복에 대한 말씀, 은혜 충만에 대한 말씀, 이 넉넉한 은혜를 받고 넉넉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그 교회의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은혜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은혜받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십니다. “왜 그런데요?” “그분은 걸핏하면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 이래서 은혜가 안됩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가 돼가지고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왜 한대지요?” “잘 몰라요 내용은 말 안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낮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왔어요. 권사님이 들어와서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 “목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를 하기에 “권사님은 죽으면 지옥 갑니까?” “아이구, 우리 박 장로가 심경계 그런 소리했구나. 나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이 안고 있는 문제성,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문제가 되는 죄를 저에게 원하니 보여 주십니다. “권사님, 그 죄 가지고는 지옥 안가겠는데요.” “아니, 내가 아무보고도 말한 적이 없는데 내 죄를 알아요?”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내가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권사님, 서로 마주 보고 하면 부끄럽고 그러다 권사님 처리 보세요.” 나는 이쪽에 보고 말한 들었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한 5년 됐지요?” “아이구, 잘 아시네요.” “새벽기도 가다가 죄 지었지요?”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다가 이상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고, 막음으

(4면으로) ▶

니 또 물이 없습니다.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었드렸습니다. 었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반석을 하나 가리키시면서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 외쳤습니다. 마음이 찢린 사람들은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할 때에 “회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라고 베드로가 크게 외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그 심령 속에 메달라 서 메마른 심령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가리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임종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운명입니다.

우리 집 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3일만에 돌아오셨습 니다. 비를 맞고 흠뻑 젖은 몸으로 오셨는데 장자인 저를 불러 앉혀 놓고 “내 곧 간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내 곧 천국 간다.” “아이구 그러세요.” 그렇게 임종때 편찮으시지도 않고 산에가 3

토막소식

▶ 초등5부는 오는 28일 성경이야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오늘은 특별 예선이 있다.

▶ 대학부에서는 요즘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각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전도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27일에는 인하대, 5월 4일 성균관대, 11일 서울시립대, 18일 서울대, 25일 서강대, 6월 1일 신구전문대 순으로 직접 캠퍼스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

▶ 청년2부 면려회(30대 모임)에서는 지난 부활절을 계기로 새 출발을 선언, 집회시 부부반에서는 부부 특송, 남자, 여자반에서는 준비 찬송 인도, 미혼 남녀반에서는 집회 후 교제의 시간을 나누기로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미혼 남녀 100명을 목표로 한 단계 도약하는 면려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 장년1부는 오늘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이준우 강도사(에바다부 지도)를 모시고 '복음의 본질과 장애인 선교'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 장년2부는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 장년3부는 오는 28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사랑부와 에바다부의 학생과 교사들이 찬양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을 한다.

▶ 새가정부에서는 오늘 연구수업을 발표한다.

▶ 임마누엘찬양대는 오는 27일(토) 오후 5시에 나사렛홀에서 중창대회를 개최한다.

▶ 제3교구(교구장 윤성철 장로, 지도 김찬곤 목사)는 오는 25일(목) 오전 10시 충현기도원에서 일꾼훈련 및 연합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에는 교구일꾼들의 영성훈련을 실시하며, 교구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친교를 나누는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충현동산에 화재 인근 묘지에서 발화

지난 14일(주일) 오후 1시경 충현동산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날 불은 충현동산 인근의 다른 묘소에 성묘하러 온 성묘객의 부주의로 발화된 것으로, 충현동산으로 옮겨와 동산 묘분의 잔디가 많이 소각되었다. 시기적으로 잔디 성장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교회에서는 묘소를 소유하고 있는 유족들이 양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교회에서는 잔디 등 주변 정리를 잘해서 동산 공원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유족들이 묘소에서 불을 일제 사용하지 않고도 취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식당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군전도회, 헌당식 및 진중세례

60만 국군을 복음화 하기 위해 활발한 복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는 지난 4월 5일 육군 제30사단에서 진중세례식(사진)을 행한 것을 비롯하여 4월 중에 4개 사단에서 1,020명의 사병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



난 9일에는 육군 제25사단 신병교육연대교회의 헌당예배를 드렸다.

정감다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대
(목사, 제2교구 지도)

하나님께서 1995년 1월 5일에 조영광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건실하고 총명해 보이는 첫 아들을 선물로 받은 부모님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 다. 우유를 삼키지 못하므로 검사해본 결과 식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식도의 중간이 없었습니다. 연결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하였습니다. 폐기능이 나빠져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금요집회 때에 기도부탁을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회복되고 나서 최신 의술로 연결 수술이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영광이는 우유를 식도로 삼키면서 살도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결 부위가 계속 아물지 않아서 연결 부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회복이 늦어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으며, 기도 응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링겔주사를 맞는 중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또다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며, 기도 응답으로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하는 소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유도 못먹어서 장이 유착되었습니다. 유착부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역시 회복은 너무 힘들었

고 그때마다 금요집회에서 기도했으며, 기도 응답으로 살려 주셨습니다.

장기능이 심히 약합니다. 여러 차례 수술로 폐기능도 너무 약해졌습니다. 침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호스가 목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유를 직접 위에 넣어주는 호수가 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생제 투여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서 잘 못듣고 있습니다. 출생 후 줄곧 병원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번갈아 가며 계속 입원해 있습니다. 첫돌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영광이는 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적용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계속 교대로 아기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와 물질적인 도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입원비를 많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영광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력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7세가 되면 식도 연결 수술을 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인 것을 절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충현복지관 주말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성인 정신지체인들을 대상으로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프로그램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모집대상 : 학교나 그밖의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30세의 성인 정신지체인
- 모집기간 : 4월 22일-5월 4일
- 프로그램 :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등
- 문 의 : 충현복지관 재활사업부(☎ 564-4885, 562-0548)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1일) 새벽기도회

▶ (3면에서)

로 지은 죄입니다. 실범을 한 것도 아님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력이 막 떨어졌지요?"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러고부터는 죽으면 제옥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무지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제옥 간다고 생각하고 그 후부터는 기도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탄식을 하는데, 아예구, 목사님 그 죄 가지고 제옥 안가는지요?" "안갑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은혜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라서 12장 10절 말씀에 그 날의 온종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소 그들이 찢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리는 울음처럼, 장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울음처럼 통곡하리이다. 유다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스블론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남달리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각각 그 아내가 울고 할 때에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리라고 했습니다. 권사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로 그래서인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한 온사가 몸에서 마음에서 떨어져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가려야 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가려야 하는데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박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번만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영생의 길에 열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

령으로 일차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반석을 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새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할하다가, 중직 맡아 봉사 잘하다가, 어느 결에 갑자기 은혜가 떨어졌을 때에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반석을 가리키는 것, 즉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사금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날의 온종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찢은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리는 울음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우리는 울음처럼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며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을 세롭게 주시는 은혜 충만한 생활로 인도하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성령 받는 비결은 '첫째는 반석을 쳐라. 둘째는 반석을 가리켜라'입니다. 이런 두 가지 신앙의 경험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반석을 쳐라는 말씀같이 진실로 회개하고 회복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서 어느 결에 신앙생활을 잘하다 이 은혜가 사라진 감이 있는 성도는 반석을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두 번 십자가에 못박지 않습니다. 반석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사금 은혜를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충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